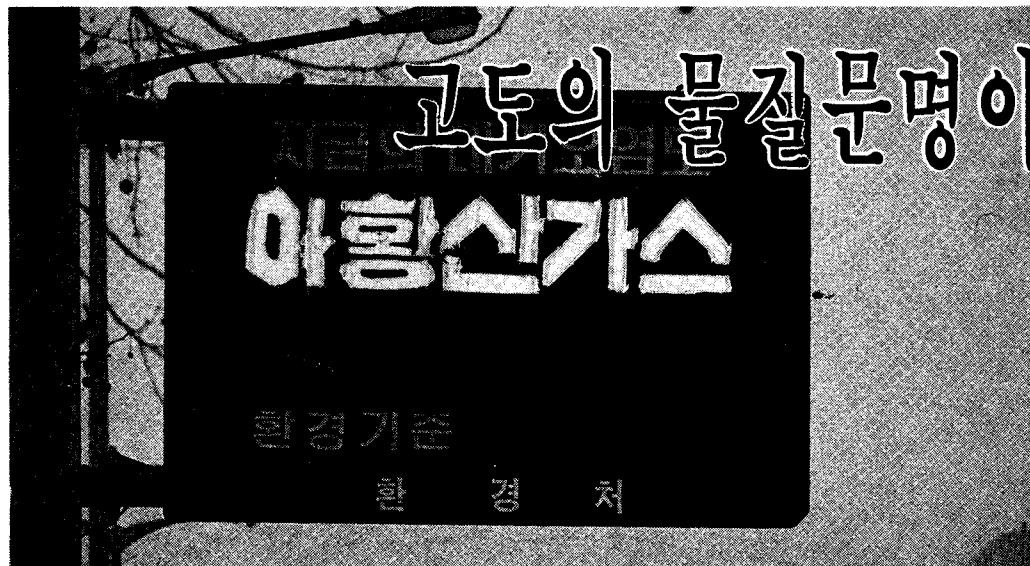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完) 환경

I. 도시환경의 악화요인

도시화는 춘락사회가 도시로 변모하거나 도시가 보다 큰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화에 수반되는 것이 인구집중이므로 인구의 많고 적은은 도시와 춘락을 가름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제가 적용되는 도시지역의 인구는 30년전만 해도 24%에 불과한 것이 현재 72%에 달함으로써 도시화가 급

격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별시, 직할시로 통용되는 대도시의 인구가 47%에 육박함으로써 국민의 절반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의 쾌적한 수준(comfort level)을 넘어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은 토지 및 각종 시설과의 비율을 불균형하게 하는 과밀문제(problems of over population)를 안겨준다. 과밀에 허덕이는 서울의 경우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술없는 산지와 임야까지 모두 합쳐 평균 72㎡(약22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려의 차원 넘어 생존위기로 치닫는 환경문제 인간의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환경경시풍조 시정해야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택과 건물들은 시장면적의 3%밖에 안되는 좁은 토지공간에

세워지고 있으며 과밀과 토지경합의 양상이 가히 살인적이다. 도시민도 원초적 의미에서 생물적 생존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순간도 공기없이 숨 쉴 수 없고, 식량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으며, 식량없이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없다. 여기에 환경의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처임과 동시에, 노폐물의 폐기장이 되므로 환경을 떠난 인간생활이란 생각할 수 없다.

이와같이 인간생활은 물질소비에 전제되어야 하는 까닭에 인구집중된 대도시 갈수록 막대한 공해, 연료, 식량을 비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물자는 비축하는 어려움 못지않게 쓰다남은 잔여분의 처리가 고민

이어서는 안된다. 한편,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풍요로운 물질은 산업화(industrialization)를 통해서 얻고 있다. 물자의 대량생산을 내다보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써 공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 공업을 통한 근대 산업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를 위해서 시설로서의 공장, 공장을 가동하는 동력원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조건들은 대도시에서 잘 갖추고 있으므로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집중을 선택하고 있으며, 공업을 도시산업으로 취급하며, 소재가 있는 것이요. 현재 서울에 소재한 산업체는 전국의 31%, 종업원에서 27%를 차지함으로써 대도시의 집

를 절감하고, 원활한 상품출하로써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모기업과 하청기업은 공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II. 도시환경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산업체는 부정적이다. 공장의 기동과정에서 석탄과 석유 등 연료소모가 필수적이고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매연(smoke), 분진(dust),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에서 밀집된 고층건물과 주택의 굴뚝에서 철야난방을 위해 배출되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도시상공매연의 매연(pollution)을 이루고 있다.

그러하여 투명해야 될 도시의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게 함으로

로 한다. 공업용수는 소모되어버리는 것과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 유형구분되지만 후자의 경우가 환경악화에 제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지, 섬유, 식품, 화학 등의 업종은 대량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제지, 표백, 염색, 탈산, 절전과정에서 불용성 화학약품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시설을 갖추더라도 가동하지 않는 채 폐수(waste water)를 방류한다.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가해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폐수의 배출업소는 서울의 강남, 북을 관류하는 한강수계를 따라 전국 31%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 폐수업소에서 방류되는 공해물과 서울시민의 생활배수가 한데 어울려 한강하류는 이제 구제불능의 단계에 들어선고 있다. 그 증거로서 서울시민의 상수도원을 중류의 팔당으로 이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BOD에 있어서 1.6mg/l이 측정되고 있다. 폐수처리장에서는 일종의 1급수가 1mg/l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서 이전한지 얼마 안되는 팔당 취수장이 2급수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공장은 자동화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게 된다. 소음은 물리적인 소리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unsound)의 본질로써, 소음공해는 원치 않는 소리(unwanted sound), 기준을 초과한 소리로 나타내지지만 90dB이상의 때 스트레스를 쌓게 되고, 그것은 정신과 심신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서울의 대동변은 70DB에 이르는 소음수준(50DB)을 초과하고 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려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III. 올바른 대응방법

새로운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적인 것에 우월성을 안고있는 도시화하더라도 환경을 떠나 도시민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만큼 환경과 인간의 관계는 긴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종전과 같이 인간을 주체로 보고 환경을 객체로 취급한다면 지배와 피지배, 주인과 종속의 관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은 환경을 한낱 인간의지의 수단으로 보고 남용과 무리한 부탑을 안겨줄 것이므로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기에 물이면서 발개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환경의 관계는 불이탈에 바탕을 둔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고안능과 더불어 환경정치의 중요성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환경은 공생개념을 안고있다. 그러기에 내가 마실 물, 내가 호흡할 공기가 따로 없다. 도시민 모두가 마시고 호흡하는 물과 공기가 되기 위해서 공동대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기와 물은 유동, 순환하는데 본래의 성상이 있으므로 확연한 경계를 지을 수 없다.

경계가 없는 소수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공생개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화는 부분공간이 모여 지구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하여 세계와 인류의 관심이 모아지는 바를 연구에 여기고 있다. 이것은 비례제와 이념을 초월한 만큼 인간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 역
< 동국대·지역환경연구소장 >



머메카지나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를 대하주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요: 200부 원고지 2~4매
◇보낼곳: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대자보, 선전물철거 음성적 배타성의 표현

대학이란 객관적 비판이 있어야 하기에 대자보나 선전물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대학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에 현재 나타나는 학내의 두가지 잘못된 현상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교수 또는 학교측이 '환경미화작업'으로 시행하는 철폐작업이다. 물론 게시판이란 철폐작업 공간이 있지만 학내의 건물이나 벽면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것이 각 기구의 환경미화로 화해될 수는 없다. 게시판이 각 기구의 다양한 목적을 담아야 하는 부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합법적 공간에 부착된 대자보가 밤새 뜯어지거나 하거나, 하루도 안지나 대자보 위에 다른 선전물이 붙어있는 현상이다. 교수정권 하수인의 소행인지 일반학생의 행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정 우려되는 바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견해에 대한 음성적인 배타의식의 도발행위여서 안된다. 대자보와 게시물을 담보할 수 없는, 또 철폐될 만큼 오물로 취급될 대자보는 주권과 본다. 그러므로 선전물은 주권과 치우치거나 편향된 사상에 빠진 대자보의 손괴는 없어야 할 것이다.

윤 중 군
< 사학·2 >

집회 뒤 쓰레기 마무리작업 아쉬워

내가 대학에 들어오지도 1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다. 지난 한해를 회상해 볼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애국의 열정으로 출렁이는 노천극장과 민중광장을 생각하면 집회 뒤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유인물과 담배꽂이가 생각난다.

식민지 조국의 해방이라는 성스러운 사상으로 무장하고 매일 매일을 자기화한 조국을 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그 숭고한 의지가 자신의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집회 뒤 교문로에서도 싸움후 버려져 있는 병조각과 돌 속에서 진정 우리의 의도가 속삭여지나

윤 중 군
< 사학·2 >

◇독자투고... '권농일'이 안고 있는 과제

권농일은 매년 5월 넷째 화요일로 금년은 오는 22일에 맞이한다.

이날의 의미는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모태기회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올해 농사를 풍년으로 이루도록 다같이 기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업적 성과를 평가하는 다른 기념행사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즉 근엄한 차이에 장중한 의식으로 수많은 훈장과 상장을 주고 우렁찬 박수소리가 진동하는 행사 아니라, 모두들 농부가 되어 허술한 차림에 맨발로 논에 들어가 모내기하고 밭을 갈고 두렁에 걸터앉아 어찌 미미한 수준이든 농부의 마음을 가져보는 날이다.

이것이 권농일이 권할(勸)자를 앞에 갖고 있는 이유이며 또한 독특한 행사 모습이다. 매년 권농일을 맞이하고 농업의 중요

성을 생각한다. 특히 최근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으로 농업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권농일과 관련하여 몇가

해가 있다. 그러나 인구 사천만 명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농업부인이 없는 도시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우며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다.

지켜야 할 사천만의 생명줄

농업문제 해결없는 권농, 걸치레에 불과

지 과제에 고찰해 보면, 첫째, 농업을 꼭 권할 것이냐하는 과제가 있다. 즉 농업부문의 비중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감소되어 버리고 있다.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고, 개방화와 더불어 국제 경쟁력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자원을 농업부문에 비농업부문에 이동시켜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재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농가를 하나 조성하려면 농지 1.5정보 약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인 1억5천만명을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므로 농지를 공동이용하는 영농조직의 구성,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영구임대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성하는

사전없이 原作을 즐기는 동안
독해력이 부족부족 늘어납니다

영어의 기본은 읽기입니다. 독해력, 독해력을 쌓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좋은 내용의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문학작품을 잘 골라놓은 「英韓대역문고100권」은 문물한 감동과 함께 찾아오는 영어의 새로운 즐거움이 독해력 증진을 물론, TOEFL·취적영어시험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英韓대역문고100권 목록

① E. A. 포우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	① 셰익스피어 The Taming of the Shrew (폭군을 길들이다)	①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② E. A. 포우 Of Mice and Men (쥐와 인간)	② 셰익스피어 A Midsummer Night's Dream (여름밤의 꿈)	②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③ E. A. 포우 Letter from Peking (북경에서 온 편지)	③ 셰익스피어 As You Like It (그대 맘대로)	③ 셰익스피어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
④ E. A. 포우 Strait is the Gate (좁은 문)	④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④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⑤ E. A. 포우 The Little Prince (작은 왕자)	⑤ 셰익스피어 A Midsummer Night's Dream (여름밤의 꿈)	⑤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⑥ E. A. 포우 The Sketch Book (스케치 북)	⑥ 셰익스피어 As You Like It (그대 맘대로)	⑥ 셰익스피어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
⑦ E. A. 포우 Goodbye, Mr. Chips (선생님, 안녕)	⑦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⑦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⑧ E. A. 포우 The Pearl (진주)	⑧ 셰익스피어 A Midsummer Night's Dream (여름밤의 꿈)	⑧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⑨ E. A. 포우 Daisy Miller (데이지 밀러)	⑨ 셰익스피어 As You Like It (그대 맘대로)	⑨ 셰익스피어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
⑩ E. A. 포우 E. A. Poe's Short Stories (포우 단편선)	⑩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⑩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⑪ E. A. 포우 Animal Farm (동물농장)	⑪ 셰익스피어 A Midsummer Night's Dream (여름밤의 꿈)	⑪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⑫ E. A. 포우 Today's Short Stories (오늘의 단편선)	⑫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⑫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⑬ E. A. 포우 Great American Short Stories (미국 단편선)	⑬ 셰익스피어 As You Like It (그대 맘대로)	⑬ 셰익스피어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
⑭ E. A. 포우 Waiting for Godot (기다려서)	⑭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⑭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⑮ E. A. 포우 The Apple Tree (사과나무)	⑮ 셰익스피어 A Midsummer Night's Dream (여름밤의 꿈)	⑮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⑯ E. A. 포우 The Summing Up (사상)	⑯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⑯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⑰ E. A. 포우 The Death of a Salesman (세일즈맨의 죽음)	⑰ 셰익스피어 As You Like It (그대 맘대로)	⑰ 셰익스피어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
⑱ E. A. 포우 The Great Earth (대지)	⑱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⑱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⑲ E. A. 포우 Great English Short Stories (영국 단편선)	⑲ 셰익스피어 A Midsummer Night's Dream (여름밤의 꿈)	⑲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⑳ E. A. 포우 Fifty Famous English Stories (50가지 유명한 이야기)	㉑ 셰익스피어 The Merry Wives of Windsor (윈저의 즐거운 아내들)	㉑ 셰익스피어 Twelfth Night (12일의 밤)

英韓대역문고100권
4·6판
권당 2,300원

운전을 배우시다
22년 전통·성실한 교육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② 택시사 무로 운영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 외국(이민) 출국자 특별반영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⑥ 통학버스 무료 운행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매주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동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 部學院	온정구 양평동 신진교동	(356) 2341-3
北 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시사영어학원
종각원·종로2가 TEL 734-2442
부설 유학국

週3日 투자!
1週日 효과!

시사영어학원에서는 「週3일 강의」로 수강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지루한 일주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週3일 강의」의 새로운 선택과 만나 보십시오.

새로운 교육과정은 반드시 새로운 효과를 얻게 해드릴 것입니다.
「러시아어 강좌개설」

「週3/日/강의」
「새벽반은 週5일 강의」

●월 수 금
●목 목 금

월 수 금 목 목 금